열매 맺는 소그룹 지도자를 위한 편지

주후 2023년 5월 8일 제590호

**기도와 함께 걸어가는 소그룹**

자신의 소그룹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하는 소그룹을 떠나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많은 세월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쳤던 소그룹을 잃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원과는 달리 어떤 소그룹들은 죽습니다. 소그룹을 죽어가게 하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기도 없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기도 없음은 곧 소망 없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그룹은 ’기도‘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눈여겨보지만,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힘쓰니라”라는 표현을 너무 빨리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매우 강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굶주린 야생 짐승처럼 먹이를 집어삼키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제목들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 쉬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식사 전에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기도는 초대 교회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도와 소그룹의 건강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이 의미 있는 기도 생활에 참여하면 소그룹은 더 건강해집니다. 의미 있는 기도는 소그룹 건강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소그룹이 죽어가는 원인은 기도 없음입니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소그룹은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그룹을 죽음으로 가는 긴 쇠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은 것, 기도 없이 소그룹을 운영해온 것, 우리 소그룹이 죽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는 소그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도 없는 소그룹’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강력히 도전받아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소그룹이 ”‘기도’와 함께 걸어가는 소그룹이 되게 하십시오!“

\*위 내용에 관해 추가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시면, 앞서 제공된 다음의 [메일링 자료]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1. [소그룹] 495호: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기도

   <http://www.disciplen.com/View.asp?BID=2703>

2. [소그룹] 499호: 소그룹 리더와 기도

   [https://www.disciplen.com/View.asp?BID=2720&PageNo=24](http://https:/www.disciplen.com/View.asp?BID=2720&PageNo=24)

3. [소그룹] 530호: 팬데믹 시대에 드리는 소그룹 기도

   [https://www.disciplen.com/View.asp?BID=2875&PageNo=10](http://https:/www.disciplen.com/View.asp?BID=2875&PageNo=10)

4. [소그룹] 549호: 소그룹 사역을 위한 기도: What & How?

   <http://www.disciplen.com/View.asp?BID=2958&PageNo=1>

5. [소그룹] 573호: 소그룹 사역을 위한 기도 /

   [https://www.disciplen.com/View.asp?BID=3073&PageNo=1](http://https:/www.disciplen.com/View.asp?BID=3073&PageNo=1)

※ 이 글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톰 레이너, 정성묵 역; 두란노)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Called to Awaken the Laity

Disciple-making Ministries Int’l

06721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8길 98

전화 : 02) 3489-4200

팩스 : 02) 3489-4209

E-mail : cal@sarang.org

www.discipleN.com, www.sarangM.com